뷥뷥뷦뷧-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잔잔한 멋 銀

찬란한 빛 金

‘천년의 名品’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3>

제39호 조각장 곽 흥 찬씨

그의 공예품을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진다. 금과 은이 주 재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놀라게 만드는 건 단단한 기물이 어찌 저리 섬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고풍스런 멋에 이끌리는 탐(貪), 이것도 욕심일까….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9호 조각장(彫刻匠) 곽흥찬씨(49·부천시 원미구 소사동)는 금속 조각의 장인이다. 금속 중 귀족공예의 상징인 금과 은이 전문. 은의 잔잔함과 금의 휘황찬란한 빛이 어우러져 시선을 떼기 힘들다.

“일종의 한국 고유 ‘명품’이죠. 예나 지금이나 명품에 대한 욕구는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요즘 명품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단순한 사치품의 경향을 띤다면 우리의 옛것은 왕실의 ‘상징’이자 전통문화의 또 다른 자산이죠. 우리의 것이라고 꼭 소박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곽씨는 부친인 고(故) 곽상진에게 자연스레 금속 조각 기술을 이어받았으며 지난 1월 도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됐다. 그가 부천에 터를 잡은 지 20여년. 그 전에는 서울 종로에 거주했다. 조상 대대로 이어진 조각 기술의 중심지에서 태어나 자란 것. 근대를 지나며 우리나라에 금방은 종로, 은방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성행했다.

조각장은 조선시대 공조(工曹) 교서관(校書館) 선공감(膳工監)에서 조각일을 맡았던 장인으로 조전(彫鐫)이라고도 했다. 일반적으로 쇠끌로 선이나 면을 파고 표면에 무늬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했다.

“우리 말로는 ‘파기’라 하는데 주금이나 단금 따위의 표면을 장식하는 기술을 말하죠. 물론 광의의 개념으로는 금속 기물에 형을 뜨는 것을 통틀어 말하기도 합니다. 크게 네가지, 조이조각과 상감조각, 입체조각 그리고 투각 등으로 나뉩니다.”

조이조각은 금속 표면을 조각정(금속 표면에 대고 망치로 두드리는 일종의 조각못)으로 쪼아 두드리고 펴는 조각을 말하며 상감조각은 금속 표면에 골을 파서 다른 금속을 넣는 것으로 은 소재에 금 무늬를 넣는 기법이 대표적이다. 입체조각은 평면조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안으로 치고 밖으로 쳐서 입체형의 본을 만드는 것. 불상 등이 이 입체조각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투각은 평면이 네모인 왕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판자에 그림이나 무늬를 새기고 이를 겉으로 따 내는 것이다.

●“조각정은 나의 생명”

…3대째 내려오는 家寶이자 밥줄

이런 조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각정이다. 정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조각 작품이 나오며 종류만도 수십여가지에 이른다. 누가 만들어주거나 양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써야 한다. 곽씨는 조각정에 유난히 애착을 갖는다.

“여느 장인이 자신의 도구에 애착이 없을까마는 조각정은 저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정 자체가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임과 동시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밥줄’이죠.” (웃음)

조각정의 특징은 그 끝이 다 틀리다. 가느다란 못처럼 생겼지만 길이와 모양, 크기 등이 모두 다르며 쓰임 역시 역할 분담이 돼있다. 촛정은 기초를 잡아주는 정으로 선이나 그림 등을 새길때 쓰이고 공군정은 바닥을 평평하게 두드리는데 쓰이며 갈기정은 바닥에 잔금 등의 무늬를 넣는 정이다. 이 밖에 칼정이나 상감정, 바닥정 등 각양 각색의 조각정이 쓰인다.

곽씨의 금속 조각 계보는 그의 조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부 故 곽순복으로 시작해 백부 故 곽상덕을 거쳐 부친인 故 곽상진으로, 이후 곽씨까지 금속 조각은 가업이 됐다. 직계 가족 외에도 故 김정섭과 故 이학응 등 당대 내로라하는 금속 조각장인들의 기능을 전수 받았다.

●“자만을 경계하라”

…부친을 비롯한 스승들의 가르침

이 때문일까. 최고 명인들의 곁에서 조각 기술을 보고 익혔지만 그 과정만은 녹녹치 않았다. 외곬수적이고 하나 밖에 모르는 어른들의 비유를 맞추기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20대 후반부터 10여년동안은 그분들 밑에서 공방생활을 했는데 말도 못했죠. 식사부터 음주 수발까지, 모든 허드렛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가르쳐주기나 합니까. 노리개조차 만들어 보이면 아무말 안하고 바로 깨뜨려 버리곤 했죠. 하지만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자만을 경계하고 제 스스로 기술을 터득하길 기대하셨던 겁니다. 지금 그 의식은 제 정신세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곽씨가 제작하는 금속 조각은 주로 사리함 등 사찰에 쓰이는 기물부터 노리개, 비녀, 과자함 등 다양하다. 오전 6시부터 밤 늦게까지 그의 말대로 ‘눈만 뜨면’ 작업을 한다. 금과 은이라는 원자재가 워낙 고가라 마진율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삼형제가 함께 모여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있다.

“우리 것이 세계적이란 말들을 하지만 말로만 외쳐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것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전통의 원형’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살기 위해 양산체제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전통의 것을 그대로 살리려 합니다. 지금 삼형제가 그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 함은 중간 거품을 빼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중간 상인의 횡포가 문제라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곽씨와 그 형제는 화려함을 뽐내는 금속 조각이 일반인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사진/원지영기자 jywon@kgib.co.kr

‘ 유통과정 거품빼기 ’ 삼형제가 뭉쳤다

곽흥찬씨는 삼형제 중 둘째다. 위로 형 곽성찬(51)과 동생 곽건찬(46)이 있다. 이들이 지금 함께 모여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금속 조각의 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다.

형 성찬씨는 세관 공무원 출신이다. 말 수가 별로 없지만 동생들을 위해 묵묵히 뜻을 모았다. 동생 건찬씨는 귀금속방에 몸을 담았었다. 부친의 작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기도 하며 중간 상인의 역할을 했던 터라 작금의 시장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금속 조각 작품이 시중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판매가격의 거품이 너무도 큽니다. 적게는 두배, 많게는 서너배 이상 비싸지거든요. 이 때문에 일부계층의 전유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금과 은의 원자재가 워낙 비싼 탓에 고가이긴 하지만 턱 없이 비싼 가격은 중간 상인들의 몫이죠.”

아들들의 입장에서 선대가 걸어온 길을 보았기에 시장구조의 모순과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통구조를 모르는 제작자 입장에선 중간 상인이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노력은 할 대로 다하고 이득은 내지도 못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삼형제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판매가 3~4배 높아져…중간 상인 폭리 없애야”

성찬·흥찬·건찬씨 금속조각품 새 판로 개척 나서

전통의 기법에 따라 작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바랄 뿐이다. 또한 물밀듯이 수입되는 외산 명품브랜드 속에 한국 고유의 명품을 만들자는 취지도 더했다.

“요즘 명품이라 불리는 외국 브랜드의 명칭 유래가 금속 조각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금·은 공예 제작자의 이름이나 상품 브랜드에서 출발한 것이죠. 이같은 맥락에 따라 작품은 전통 그대로, 판로 개척은 현대적 개념으로 시도할 생각입니다.”

우리의 것이 세계적이라는 명제가 현실적으로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이들 삼형제의 이구동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열악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형제의 모습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금속 조각 작품 만큼이나 빛나 보인다.

/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큰형 곽성찬, 조각장 흥찬, 막내 건찬씨(사진 왼쪽부터)